

주님,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견뎌야 한다면 저를 위해서 역사해주세요.”

내 아들 제임스가 세상을 떠나고 남편과 나를 보살피며 슬픔을 나누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차츰 줄어들었다. 우리 집은 이전처럼 조용하고 정리된 상태를 되찾았다. 그러나 내 내면은 조용하거나 정리된 느낌이 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배가 뒤틀리고 아프고 어지러워 침대에 누워 있을 때였다. 심장이 빛의 속도로 뛰기 시작했고 불안감과 공포심이 나를 압도했다. 무언가 불쾌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일어나서 집 안 반대편으로 갔다. 그러자 내 존재 가장 깊숙한 곳 미지의 동굴에서 내 목소리인지 아닌지 모를 거친 신음과 통곡이 솟구쳐 올라왔다. 나는 이 감정의 깊이와 슬픔의 위력을 깨닫자 더럭 겁이 났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구멍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추락하는 것만 같았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얼마 동안 나는 슬픔의 고통에 흠뻑 젖어 있었고, 집에 마련한 작은 사무실로 가서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일을 했다. 나는 성경을 집어 들고 울부짖었다. “주님,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견뎌야 한다면 저를 위해서 역사해주세요.” 여호수아서를 펴자 다음과 같은 말씀에 시선이 쏠렸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하느니라”(수 1:9). 앞에 무엇이 있는지, 슬픔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처럼 나 역시 한 번도 그런 길을 가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에 파괴와 우울과 절망의 지뢰가 가득 묻혀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견디기 어려운 슬픔과 비통의 발작이 언제 또 겹으로 드러날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제임스가 세상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어찌지? 제임스를 잃은 일만 생각하면 어찌지? 평정심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찌지?’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면서 말씀을 읽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조용하게 내 영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여정의 모든 단계들을 안다. 모든 복병들이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 알고 있어. 네 하나님 여호와와 슬픔의 길을 걸어보았다. 이 길에는 나를 깜짝 놀라게 할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성경책 가장자리에 ‘2010년 10월, 슬픔의 여정이 시작됨’이라고 표시했다. 여호수아서의 그 말씀을 기념비로 삼고 수시로 읽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작고 고요한 음성이 내 마음에 속삭였다. “젠, 나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너의 전속 여행 안내원이야. 나와 함께하면 너와 네 모든 삶이 안전하단다.” 불 속에서도, 물속에서도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 나는 평온한 확신을 얻고 침대로 돌아가 아침까지 굳히 잘 수 있었다. 당시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치유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내 상실의 고통과 슬픔을 이기고 역사해주신 일이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내 영에 뚜렷하게 새겼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힘을 얻었으며, 기쁨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모든 상한 심령에 대한 궁극적인 예후(prognosis)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다는 매우 실제적인 소망을 내놓으신다는 진리이다.

-젠 해리슨의 “나에게 폭풍이 왔다” 중에서-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4권 33호 2018년 8월 19일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기우석 집사

경배와 찬양 (Praise)

*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다같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이우인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s)

사회자

봉헌 (Offering) 71장 (새찬50장)

다같이

* 봉헌송 (Offering Hymn) 1장

다같이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박태열 목사

성경봉독 (Scripture) 갈라디아서 2:20

다같이

성가대 찬양 (Choir Anthem)

예함찬양대

설교 (Sermon)

박태열 목사

죽는것이 능력입니다

파송찬양 (Closing Hymn) 519장 (새찬461장)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박태열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 11am

주일학교 / 11am

중고등부예배 / 11am

[주중예배/모임 안내]

새벽예배 / 5:30am(화-토)

Acts29 기도 / 6am(주일)

수요예배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성인성경공부 / 1pm(매달 둘째, 넷째주일)

한국학교 / 3pm-6pm(토)

[정기기도모임 안내]

남선교회기도모임 / 5:30am(매달 첫째주 토요일)

첫째주 토요일)

선교부기도모임 / 7pm(매달 둘째주 월요일)

주 월요일)

[다음주일 대표기도]

최종인 장로

교 회 / 교 우 소 식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교회벤 구입을 위한 특별헌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금봉투에 “교회벤 구입”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오늘 (8/19) 친교후에 **임시제직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제직들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 ◆ **새가족교육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오늘 임시제직회 후에 1차 교육이 있습니다.
1차: 8월 19일(일) 오후 1시, 2차: 8월 26일(일) 오후 1시, 3차: 9월 2일(일) 오후 1시, 4차: 9월 9일(일) 오후 1시
- ◆ 8월 26일(일) 오후 6시에 World Mission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 장다윗 선교사 (중동아시아), 장소: 생명의 빛 교회, 21 Kossman St., East Brunswick, NJ 08816.
- ◆ 지역의 11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9월 8일(토) International Day of Unity 행사**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참석합니다. 시간: 오후 12시-4시, 장소: Mt. Zion Baptist Church, 353 S. New Rd., Pleasantville, NJ
- ◆ **남부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 목회자 가족 수련회**가 8월 26일(일) 부터 28일(화)까지 2박 3일로 Sandy Cove Ministries에서 있습니다. 담임목사님 가족 참석합니다.
- ◆ **8월 26일(일) 주일예배는 열린예배로 모든세대가 함께 드립니다.** Darlene Line 선교사님과 Malena Towers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 ◆ **추계 말씀성회**가 9월 21일(금), 22일(토), 23일(일) 고세진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 ◆ 친교는 윤여옥 집사님께서, 제단헌화는 장경숙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부 서 별 소 식

[한국학교]

오늘 (8/19) 임시제직회 후에 한국학교 이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남선교회]

매월 첫째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남선교회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기도모임은 9월 1일(토) 입니다. 간단한 아침식사 준비됩니다.

[선교부]

매월 둘째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선교부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기도모임은 9월 10일(월) 입니다. 간단한 저녁 식사 준비됩니다.

[교우/교역자 소식]

- ◆ **박태익 목사님** 신장제거 수술 후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 **천춘옥 권사님** 다리 수술 후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후원]

- ◆ 파송선교사 가정인 문열림 선교사, 주은혜 선교사 (기쁨, 거룩)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문열림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 ◆ 협력선교사 가정인 김희기 선교사, 박경선 선교사 (진서, 진후)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김희기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증보기도요청]

- ◆ **찬양사역자, 성가대 반주자, Youth 전도사, Children 전도사**를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원할수 있도록 제정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중 모 임 / 행 사

8월 19일(일) 1:00pm 임시제직회의
1:30pm 1차 새가족교육
한국학교 이사회 모임
8월 26일(일) 11:00am 열린예배
1:00pm 2차 새가족교육
9월 2일(일) 1:00pm 3차 새가족교육
9월 8일(토) 12:00pm International Day of Unity
9월 9일(일) 1:00pm 4차 새가족교육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사랑의 법]

1.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 위반 시에는 자진해서 선교헌금 \$100을 낸다.
2. 교회에서는 친하다고해서 또는 나이가 어리다고해서 반말을 쓰거나 말을 함부러 하지 않는다. 항상 직분을 부르거나 성도님이란 호칭을 사용한다. 위반 시에는 자진해서 선교헌금 \$100을 낸다.
3. 교회에서는 남을 지적하는 말, 남을 헐뜯는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위반시에는 자진해서 선교헌금 \$100을 낸다.
4.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언성을 높이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다. 위반시에는 자진해서 선교헌금 \$1,000을 낸다.

지 난 주 일 통 계

헌금총액	\$2,462	출석총인원	39
십일조	\$1,650	KM 본예배	37
주정(주일)	\$352	주일학교	2
감사헌금	\$140		
선교헌금	\$30		
주일학교	\$10		
교회벤구입	\$280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 ◆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 ◆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 ◆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 ◆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친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8월 친 교 / 헌 화

5	최미경집사 / 이미경권사
12	최영숙권사 / 조동남권사
19	윤여옥집사 / 장경숙집사
26	윤여옥집사 / 서낙선권사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지휘자: 연석윤	반주자:
시무장로: 최종인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파송선교사: 문열림 주은혜 (기쁨, 거룩)	
협력선교사: 김희기 박경선 (진서, 진후)	